

장백산천지

제 230 호

2014 년 5 월 10 일

토요일

[밍후이왕] 나는 대륙의 정부 행정관리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파룬궁을 수련한지 이미 13년이 된다.

어느해 만우절 날 한 동료가 나의 사무실로 일보러 왔었다. 나는 그 동료를 보자 갑자기 농담을 하고 싶어져 그와 농담을 했다. 농담은 들어보면 뻔한 거짓 말인데도 그 동료는 어떤 의심도 없이 바로 믿는 것이었다. 후에 내가 오히려 미안해져서 그에게 농담이지 이런일이 없다고 사과했다.

나는 이 일은 곧 이렇게 지나가리라고 여겼는데 뜻밖에도 그 동료는 아주 상심한 어조로 “당신은 왜 거짓말을 해요? 당신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미안해요 일부러 한 거짓말은 아니고 그냥 만우절이라 농담을 했을 뿐이요.” 라고하자 그는

안녕, 만우절(愚人节)



머리를 저으면서 “만우절이라도 안돼요,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수 있어도 당신만은 하지 말아야 해요.” 라고 했다.

나는 궁금해서 “왜 안되나요?”라고 묻자 그는 “나는 우리직장에서 당신만은 종래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말에 신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 사회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드물어요. 어제 제 친구도 이 사회는 끝장났다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더군요. 나는 그에게 ‘너무 절망 하지 마, 적어도 우리 단위의

한 사람만은 종래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다시말해서 당신은 저한테 믿음과 희망을 줬다고 말할수 있어요. 만약 당신까지 거짓말을 하게되면 저는 정말……”라고말했다. 그날부터 나한테 다시는 만우절이 없었다.

수련전, 나는 물질과 욕망이 넘치는 현실사회에서 흐리멍덩했었고, 맹목적으로 따르기도 했다. 수련한 후 나는 건강한 신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것은 사람은 왜 살아야하는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 매일 즐겁고도 충실하게 보낼수 있었다. 무릇 어떠한 환경에서든 나는 파룬궁의 ‘真、善、忍(썸, 썸, 런)’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고, 진실한 말을 하며, 명예와 이익을 담담히 보고, 매사마다 우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

청조 후기 함봉(咸丰)6년(공원 1856년) 진사(進士) 하동선이란 관원이 있었는데 자순락(字舜乐), 호 자송(号子松)이라 했다. 그는 사람을 대함에 성실하고 남을 잘 도와 주었다. 관직을 맡은 후 더욱 정직하고 소박했으며, 일심으로 백성을 위하는 청조 후기때 보기 드문 좋은 관원이었다.

하지만 50 세때 그는 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장씨 하인은 주인이 일찍 떠난데 대해 너무나도 비통해 비애에 잠겨 “주인은 한평생 선을 베풀고 덕을 많이 쌓았는데도 장수하지 못한걸 보니 진짜 좋은 사람

도대체 수명이 짧았던 것인가, 아니면 수명을 연장한 것인가?



이 되어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는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장씨의 꿈속에 하동선이 선명하게 나타나 그에게 “네가 낮에 했던 말은 너무나 틀린 말이다. 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39 세때에 큰 병으로 앓은 적이 있었잖은가? 그때가 바로 이번 생 나에게 정해진 수명이었다. 하지만 내가 줄곧 선하게 살았기에 하늘에서 나에게 수명을 연장해 주었다.” 라고 말했다.

이때 장씨 옆에서 잠자고 있던 다른 한 하인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꿈에서 깨어난 장씨는 왜 소리를 질렀냐고 묻자 그 하인은 방금 세상든 주인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 꿈에서 본 정경을 이야기 했다. 두 사람이 꿈에서 본것은 같은 정경이었다. 장씨 하인은 주인이 선한 일을 하여 수명을 연장 했다는 것을 알게되어 그때로부터 늘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 주면서 선하게 살것을 권했다.

부동하게 표현되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구분하기 어렵다. 이는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사람은 미중에 있다 이다. ◇



연변박해소식

길림 성 연변 룡정 시 최봉화가 납치당하다

2014년 4월 30일 오후, 연변 룡정 시 파룬궁수련생 최봉화가 선원 시디를 직접 악인에게 배포하다가 납치되어 룡정 공안국에 감금되었다. 소식에 따르면 최봉화는 이미 연길로 이송되었고, 집을 수색 당하고, 사부님의 법상과 대법서적, 그리고 모든 자료를 몽땅 강탈당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최봉화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파룬궁이 무엇을 금지하면 중공은 그 무엇을 꾸민다

[밍후이왕] 파룬궁은 살생을 절대 금지한다. 당연히 살인과 자살을 포함한다. 하지만 중공은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씌우고 모함하기 위해 수많은 거짓 조작 사건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천안문 분신자살’, ‘푸이빈이 부친과 아내를 살해한 사건’, ‘절강 거지 중독안’ 등등이다. ‘천안문 분신자살’은 파룬궁을 모함한 자작극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국내외 인사들은 알고있다. ‘천안문 분신자살’의 비디오를 보면 많은 조작된 허점들을 보아낼 수 있다.

얼마전 대륙매체에서 하남휘현(辉县)에서 ‘쌍수’음란사건을 수색 체포했다는 소식을 제멋대로 전제하면서

파룬궁에 누명을 뒤집어씌웠다.

리홍쯔(李洪志)선생은 ‘전법륜’ 제 5 강의에서 ‘남녀쌍수’는 티베트 밀종 수련방법중의 것이라고 했고, “특히 우리 파룬따파(法輪大法) 이 한 법문에는 남녀쌍수가 없으며 또한 이것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그러기에 파룬궁 진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파룬궁이 무엇을 금지하면 중공은 그 무엇을 꾸민다”라고 말한다.

도리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모두 금지하고 못하게 하는 일을 사람들이 가서 한다고 당신이 아무리 그럴 듯하게 말해도 사람들은 더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중공은 국가를 매체

로 공포주의를 실시하여 파룬궁의 모든 자료정보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



중앙텔레비전에서 조작한 ‘분신자살’의 비디오를 보면 왕진둥의 면부는 불에 타 손상받고 옷은 불에 타 너덜너덜했지만 그의 두 다리사이에 놓인 휘발유를 담은 록색 음료 병은 그대로 있었다. 경찰이 그의 신변에서 소방담요를 들고 흔들거리면서 왕진둥이 구호를 다 외친 후에야 비로소 기계적으로 담요를 그의 머리에 씌웠다.



어머니의 이야기 (런재2)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매일 즐거운 모습으로 보냈다. 어느 겨울인가 나는 감자를 많이 사서 다 먹고 남들이 한겨울 묵은 버리는 감자까지 주어와서 먹었다. 어떻게 먹었냐면 어머니는 매일 부엌에서 감자를 구워서 볶은 참깨랑 소금과 함께 찍어먹으면 정말로 너무나 맛있었다. 이렇게 모녀는 매일 순박하게 감자도 먹고 뜯깁은 나날을 보냈다. 더우나 내가 외출하여 돌아오면 어머니가 금방 구워놓은 감자를 한입에 넣을때는 정말로 뜨끈뜨끈하고 맛있는데 잊을수가 없었다. 지금도 나는 "천륜의락"이라는 단어를 봐도 그때 그 행복했던 그림이 눈앞에 떠오르곤 한다.

두가지 큰 병이 완쾌되다

2004 년의 어느 하루, 어머니는 나를 보고 “진짜 신기하다! 내가 너의 집에 온 다음 두가지 큰 병이 사라졌다. 이전에는 눈앞에 늘 쌀알만큼 큰 검은 것이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백내장 증상) 몇십년 동안이나 처져있던 자궁이(子宮下垂) 어느 때 되돌아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신체가 조금 아주 좋지 않았는데 수련을 시작해서부터 다시는 약을 먹지 않았다. 억지로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시작에 어머니는 돈을 남겨 생명의 최후시기 급할때 쓰려고 생각 했으나 법공부를 많이 함에 따라 그런 생각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사실상 어머니의 신체는 날마다 좋아졌다. 84 세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줄곧 눈이 어지럽지 않았고, 귀도 멀지 않았으며, 머리는 아주 청성했다. 노안경을 쓰지않고도 바늘에 실을 꿰수 있었으며, 장보고 밥하는 등 집안 살림까지 전부 주동적으로 도맡아하시면서 나에겐 손도 대지 못하게 했다.

어머니는 원래 수명을 연장하여 수련할수 있었는데 (파룬궁은 이런 특점이 있다) 2005 년 전후에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만들어 法輪功(파룬궁)에 먹칠하는 것을 보고 딸이 또다시 납치 당할까봐 아주 두려워 했다. 예전에 내가 어머니의 집에서 납치당하던 정경이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주 큰 압력을 느끼면서 누가 문을 두드리기만해도 긴장해 했고 딸이 곁에 없으면 크게 근심을 했다. 년로하신 어머니는 이렇게 몸과 마음의 시달림과 공포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2005년 1월 19일 새벽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당시 나는 자지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왜 갑자기 토하지?”라는

어머니의 말소리가 들려서 다급히 물을 떠가지고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았다. 당황한 나는 한편으로는 가족들을 부르고 한편으로는 어머니한테 인공호흡을 했다. 비록 가족들이 이미 안된다고 말했지만 나는 믿어지지 않았다. 방금까지만 해도 좋았었고 또 나한테 12가 되었다고 알려주기까지 했던 어머니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누가 뭐라 해도 듣지 않고 어머니를 업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우리는 병원 문어구에서부터 빨리 응급치료를 해달라고 웨쳤다. 의사는 검사하고나서 이미 숨이 멈추었기에 응급치료를 할수 없다고 했다. 그때 우리가 너무 안타까와 하는 이 장면을 본 현장의 사람들은 모두 노인이 진짜 복이 있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나는 원래 사람이 늙어 돌아가기 전까지 신체가 건강하다가 자식들에게 아무런 부담도 주지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것도 오복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가 받은 더욱 큰 복은 우리가 지금은 알수 없지만 나중에 파룬궁의 진상이 크게 나타날 때면 어머니의 올바른 선택과 어머니가 하신 대가로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가 있음을 볼수 있을 것이다.